

차대통령 민생드라이브 '인사잡음'에 주춤?

황철주 검증 부실... 靑 '안이한' 판단 정황 현오석·김병관·한만수 철회 주장에 부담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운영이 있던 인사 잡음으로 속도감을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을 계기로 강력한 민생 드라이브를 걸면서 집권 초반 정국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황철주 증거청장 내정자의 전격 사퇴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재연됐다.

후보자·내정자의 자진 사퇴는 벌써 세 번째다. 또 결과적으로 증거청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박 대통령의 정책 실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같은 인사 실패는 자칫 새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국 운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커서 청와대 측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더욱이 사퇴의 결정적 이유인 공직자 주시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황 내정자 역시 청와대의 설명은 있었다고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청와대가 '안이한' 판단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황 내정자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제도에 대해) 이해를 잘못한 것이다. 그쪽(청와대)에선 백지신탁이란 의미를 (내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만수 공적거래위원회 내정자의 경우도 과거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 유명 외국계 기업의 소송업무에 대리인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으로로서 부적절한 경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도 야당의 임명철회 주장이 계속되

면서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인선이라는 지적이다.

김 내정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얀마 자원개발 업체인 KMDC 주시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 내정자 측은 19일 "비상장 KMDC 주시 750주를 2011년 5월 초에 주당 4만 원선(총액 3000만원)에 본인 명의로 매입했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는 주시 가치가 폭락해 자산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일각, 특히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도 답답해 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영남권의 한 친박 의원은 19일 "인선이 끝났는지 않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새 사람을 뽑아 쓰려다 보니 그런 실수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돼야 한다. 그러려면 전 정권의 인사파일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7대 종단 지도자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의장 7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은 얼얼 땀방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핵을 멀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김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준영지사, 도쿄서 투자설명회 투자유치를 위해 일본을 순방중인 박준영 전남도지사 19일 오후(현지시간)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니혼스타' 기네부치 유타키 대표, '다이하루' 혼다 사토시 사장 등 40여명의 일본 식품, 부품·소재산업 기업인 대표들을 초청해 투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부품·소재산업과 섬개발 등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새로운 투자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美 B-52 폭격기 한반도 폭격훈련

미 공군의 주력 폭격기인 B-52가 19일 오전 광에서 출격, 한반도 상공에서 폭격훈련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이날 "오늘 아침에 광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폭격기 한 대가 4시간 정도 비행해 한반도에 전개됐다"며 "정오 전후로 폭격훈련을 한 뒤 광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폭격훈련은 강원도 영월 소재 필승사격장에 세워진 가상의 목표물을 실제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B-52는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한 뒤 착륙하지 않고 바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B-52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미측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B-52는 최대 27t의 폭탄을 싣고 6천4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 단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35t에 최대 항속거리가 1만6000km에 달한다.

/연합뉴스



미 공군의 주력 폭격기인 B-52가 19일 오전 광에서 출격, 한반도 상공에서 폭격훈련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 공군 제공>

기업 대출금리 조작 檢, 외환銀 압수수색

290개 지점 180억 부당이익 시중銀 1~2개 수사 확대 주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윤식 부장검사)는 19일 기업 대출금리를 전산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외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형 시중은행인 금리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기초'에 맞춘 수사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전산자료와 대출 기업 명단, 대출금리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운용로 행장에게 압수명령을 제시하고 IT 담당자를 불러 2006년부터 작년 9월까지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관련 전산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주 금증감독원의 통보(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외환은행은 전국 290여개 지점에서 6000여 건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을 하며 가산금리를 약정금리보다 높게 임의로 전산 입력해 18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은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 등 사유가 없는 한 여신약정 금리를 변경할 수 없게 돼 있고, 사유가 생기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금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절차를 무시하고 대출기업 몰래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에 가산금리 조작을 지시했는지, 관련법규상 금지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와 이 과정에서 은행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 권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분석이 끝나는 대로 금감원에서 통보된 은행 전·현 임직원 10여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외환은행 외에도 유사한 대출거래 행태를 보인 1~2개 시중은행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앞서 외환은행은 2006년 6월~2012년 9월 중소기업 3000여 곳과 여신약정을 맺고 대출 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18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외환은행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2주 전 르네상스 시절의 대출가산금리에 대한 기관경고 및 임직원 징계 사항과 관련해 자료 협조 및 사실확인 차원에서 검찰이 방문한 것으로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58일째 공석 헌재소장 인선 언제하나

구례 출신 이공현 전 재판관 등 거론

정부의 5부 요인 중 한 명인 헌법재판소장 인선이 계속 미뤄지면서 현재의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 지 23일이지나도록 아직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19일 현재 헌재소장 자리는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 1월21일 퇴임한 이후 58일째 공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3일 지명한 이동홍 전 소장 후보가 중도 낙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박 대통령이 인선을 늦추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이는 적임자를 쉽게 찾

지 못한 때문이란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소장 권한대행인 송두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22일 끝나 현재는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체제면 위험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현재 재판관 8명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도 서울대 법인화 반대 헌법소원사건과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 위험 여부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이 있는데도 지난달 정기선고 때부터 단 한 건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헌재소장 후



보 하마평이 무성하다. 헌법재판관 출신으로는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임명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목영준 전 재판관, 합헌 의견을 많이 내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다 구례 출신으로 지역안배 차원에서 유리한 이공현(사진) 전 재판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조직 안정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일환 전 대법관의 지명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여성 최초 대법관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클린 광주' 을 150만그루 나무 심기 나선다

광주시는 19일 "숲과 물이 어우러진 쾌적한 광주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나무 150만 그루를 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과 하프마라톤코스 주변 경관 숲 조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공공공지 숲 조성, 안충녹지대 수림대 조성, 벽면녹화사업, 녹색복지 및 학교 숲 조성 등을 통해 나무 8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영산강대상공원 내에 가족 생일, 결혼, 장암, 취업 등을 기념하는 기념식수 동산 조성, 자기가 나무 1그루 심기, 내 집 앞 1가지 2그루 과일 나무 심기 운동 등을 추진해 총 7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영산강 오희

지구 대상공원 제방둑길에서 시민단체와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회 식목일 기념행사로 목백합 등 60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시는 또 오는 25일 오전 11시에는 광주시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선착순으로 감나무와 자두나무 등 과일나무 3000그루를 나눠주기로 했다.

광주시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공기가 깨끗한 도시로 선정된 광주의 '클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15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민 모두가 자기가 나무 1그루 심기 운동 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삼희공인중개사

■상가건물전문■
◆10억부터 50억이상◆
◆금매물 분사 당일계약!◆
◆경매 진행 중 부동산◆
(취하 및 매입가능)
◆상속부동산/지분부동산◆
◆모든부동산 출장가능!◆

매매
* 서구 차평동 이마트 4차선대로변 5층건물 대지860.3제곱미터(260평)건 3.047제곱미터(922평) 지하1층/지상5층/대출금(24억) / 매매가138억 보증금(5억4천2천) / 월세 2700만 / 관리비160만 실투자금 8억4천8천만 / 실수익률 연16.5%

* 동구 동명동 조순대후문 인근 6층고시원 엘리베이터 대지236제곱미터(71.5평) / 도로(14평) 방67개 건731제곱미터(221평) / 대출(2억7천7천) 매매가4억4천만 / 직영시 수익률 000%

* 북구 문충동 6차선대로변지하1층/지상7층중 4층집합건물 건727제곱미터(분양350평) 병원,한의원,독서실 찜질방가능 대출금(6억) / 매매가16억5천만 / 실투자금 5천만 매입후 분할임대시 수익률 000%

임대
*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1층 대로변 건330제곱미터(100평) 방33개 / 월2200만
* 서구 차평동 이마트 인근 4층 사무실 건494.49제곱미터(170평)

상가 투자지, 매수자 상담환영 투자회원모집(약간형)
법률/금융상담 /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 2890㎡ 감정가129억
▷ 무안군 망운면 관리지역 3층편선시설 대지850㎡ 건평 1146㎡ 감정가11억 최저가4억

단독주택
▷ 동구 내남동 2층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3억
▷ 무안군 한경면 단독주택 대지660㎡ 건평96㎡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억

공장및창고
▷ 광안구 안창동 하남산단내2층공장 토지5940㎡ 건물 6532㎡ 감정가36억 최저가25억
▷ 할평읍 장교리 관리지역 양어장및공장 토지14792㎡ 건물4292㎡ 감정가27억 최저가19억
▷ 광안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 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나주시 공산면 3층공장 토지29710㎡ 건물1826㎡ 감정가17억3천만 최저가8천만

토지매매
▷ 화순읍 유천리 자연녹지 답 2007㎡ 감정가8억4천만 최저가2억3천만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4천만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매 또는 교환원전 우선 접수중!
*10억~100억이상의 건물 규규합!
=상가 및 사무(매매)=

* 상무지구 사무나 현성업종 최고의 수익률 보장(매매)
* 남구 진월동 국제호텔부근 상가건물 대지 9600평 건평 1000평
* 상무지구 중심지역의 상가빌딩 대지 173평 건평 1,172평
* 상무지구 메인도로 대형빌딩 대지 1,058평 건평 4,295평
* 서구 광천 티미부근 건물 대지 850평 대지 2,620평 (모든건물 공실없음, 임대수익 보장)
* 기타 외 현성업종인 건물 다량보유 = 토지매매 및 분양 =

* 황금노을의 명소, 서해바다 부근군 공소에 펜션타운부지, 전원주택부지, 한옥마을 부지를 300~500평단위로 분양합니다.
* 무안군 창래리 지도보행방바탕부근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전용 대지 2,340평
* 광양읍 덕래리 대지 2,800평
* 나주시 금천면 원곡 대지3,200평
* 광안구 송정역부근 대지 1,150평
* 상무지구 중심지역 대지 약 1,000평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 전화접수 후 내방시행인 친철상담환영

☎ 956-6660 / 010-2139-6255 FAX. 956-6608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토지(매매)
중심상업지역
▷ 나주혁신도시 중심상업지역 택지개발 지구 내 대지 1002㎡ 매매가 21억98천 * 위토지 현재시점 건축 및 분양권임
▷ 나주혁신도시 중심상업지역 택지개발 지구 내 대지 1200㎡ 매매가 25억7천만 * 위 토지 현재시점 건축 및 분양권임
▷ 나주혁신도시 중심상업지역 택지개발 지구 내 대지 1096㎡ 매매가 24억 * 위 토지 현재시점 건축 및 분양권임

근린생활지역
▷ 나주혁신도시 근린생활용지 택지개발 지구 내 대지 640㎡ 매매가 16억95천만

전용주거지역
▷ 나주혁신도시 협의지역(주거용)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 270㎡ 매매가 1억 8천만

점포주택용지
▷ 나주혁신도시 이주지역(점포주택)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 284㎡ 매매가 2억9천55만

가든
▷ 전남 정촌군 관신읍 대지991㎡ 임야 2314㎡ 건평 132.2㎡ * 현관산도림공원 자연휴양림 초입지로 완유으로 건축됨. (개인사정으로 매매) 매매가3억원

니주주택개발지구 인근 토지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답 66,116㎡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예정(5월 혁신도시 메인도로에서 시청가는 길목위치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분양·대행·사행 상담)

동원공인중개사 (사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보3억, 월2500만 매39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보3억원, 월1200만 매23억원
* 광안구 수원지구
보3억9천, 월1390만 매24억원

■대지/답■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960㎡ 매 36억원
* 차평동 광순도로 395㎡ 매14억원
* 마곡동생선단지 도로점 895㎡ 매70억원

■세종시 상업지■
* 세종시 상업지 1155㎡ 매42억원
* 세종시 1층상가 165㎡ 매11억원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062-381-6001 010-3753-0033